시집

단죄한다 아메리카

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 출판사
1963

시 집

단죄한다 아메리카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출판사

1963

차 례

서 문

오늘 우리 시대는 침략과 착취를 반대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략탈과 억압을 반대하여 모든 인민,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이 한결같이 투쟁에 일어 선 혁명의 시대, 폭풍우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사는 현 시기 인민들의 생활 감정은 응당하게 오늘의 우리 문학 예술에 반영되고 있으며 또 더욱 반영되여야 한다.

특히 벌써 백여 년 전부터 미제 침략자들의 계속되는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3 년 간이나 생사를 걸고 놈들과 판가리 싸움을 하였고 오늘도 계속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총을 든 채 놈들과 맞서 있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마음은 세계 어느 나라 인민보다도 강렬하다.

조선 인민의 이와 같은 생활 감정은 조선 시 문학에 뚜렷이 반영되고 있는바 조선 시단에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폭로 규탄하며 증오 저주하고 멸시 조소하는 각양한 목소리가 폭풍우와 같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것은 국경을 넘어 세계의 하늘'가에도 높이 울리고 있다.

조선의 시인들은 이것을 무한한 자랑으로 생각하며 다만 조선 문학사 앞에서 뿐 아니라 세계 문학사 앞에서 지닌 자랑찬 임무로서 간주하고 있다.

현 세기에 있어서 누가 진정으로 지구 우의 평화를 사랑하며 누가 진정 자기 인민과 나아가서는 세계 인민의 행복을 념원하며 인류의 문명과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만신의 증오와 저주를 표시하는가에서 반증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조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인민들에게 피눈물 나는 불행과 참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지구의 동서남북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괴수가 바로 미 제국주의다.

남부 월남, 라오스 등 먼 곳에 례를 들 것 없이 바로 우리 조국 남반부 땅의 현실만이라도 보라!

바로 이 순간도 남반부에서 우리 부모 형제들은 미국 침략 군대의 발'부리에 채이고 밟히우고 백주 대낮에 놈들의 총창에 찔리여 죽어 가고 있다. 놈들에 의하여 우리 조국 남반부는 지구상의 가장 비참한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놈들은 우리 조선 인민을 애당초 인간으로 취급하려고부터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미 제국주의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펜대를 총창과 같이 고누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치떨리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를 어찌 시인이라 하겠는가!

이 치떨리는 분노의 목소리를 시에 담지 않으면서 무슨 시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원쑤에 대한 증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사랑의 반충이 아닌가!

배 부르고 게을러지고 혁명에서 탈락하여 가는 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껴안고 빰이라도 비벼 보라고 하라.

그러나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전 세계에서

침략과 착취가 없어지고 저 아프리카의 먼 촌락과 태평양 우의 이름 없는 어촌에 이르기까지 지구 우에 사는 모든 인민이 다 같이 자유 평등하게 생을 노래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끝까지 제국주의를 증오 저주하며 놈들과 싸워 나갈 것이다.

특히 자기 조국 땅의 남쪽 절반을 미제의 철쇄에서 해방하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이룩해야 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한 시도 한 순간도 꿈'결에도 미제를 증오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조선의 시인들은 더욱더 미제에 대한 증오와 저주, 멸시와 조소의 목소리를 높일 것인바 그와 같은 시와 노래들은 다만 조선 인민 뿐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모든 인민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며 반대로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비수로 될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illegible]적인 우리 시가에 대하여 갖은 악의에 찬 비방 [illegible] 다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시가가 놈들의 아[illegible]을 찌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전투적 시가는 온갖 잡소리

를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낯바닥을 후려갈기며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사실주의 시가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는 합창곡으로 될 것이다.

비겁한 자야 갈려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킨다!

먼 후'날 지구 우에서 제국주의가 소멸된 후에 가서도 우리의 전투적인 시와 노래는 마치 고전장에 서 있는 이끼 푸른 비석과 같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시인들이 싸워 온 자랑찬 모습을 전하여 줄 것이다.

백 인 준

정의의 총을 잡고 나가는
전 세계의 전우들에게

정의의 총을 잡고 나아가는
전 세계의 전우들이여!
밀림을 헤치며
자유의 태양을 향해 나아가는
남부 웰남의 형제들이여!
30 배도 더 체통이 큰
아메리카의 멱살을 꽉 틀어 쥐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과 기쁨으로 들끓게 하는
통쾌한 큐바의 동지들이여!
불타는듯 뜨거운 사막을 밟으며
제국주의를 아프리카 사막에 파묻고 있는

알제리아와 콩고의 형제들이여!

이렇게만 불러 나가도
나의 가슴 한 없이 설레이누나!
우리들을 하나의 전선에 묶어 세우는
뜨거운 동지애 전우애로 하여—

오늘도 이상 없느냐 그대들의 전선에?
여기는 변함 없다 사회주의 동방 초소!
승리한 조선의 푸른 파도가
금강산 발'부리에 구슬을 뿌리고
용광로마다엔 쇠'물이 폭포친다,
오늘도 뜨락또르의 동음 소리
봄 하늘에 가득 찼나니
튼튼하다 조선 전선은! 전우들이여!

내 소식 묻노니
라오스의 밀림 속에 바람 소리 어떻느냐?
요사이 베네주엘라의 어디어디서
원쑤들의 아성이 무너졌으며

지구 우의 그 어느 촌락과 거리에
해방의 기'발들이 새로 펄럭이느냐?

알고 싶어라 샅샅이 하나 하나
오늘은 어느 용감한 전우 어느 전선에서
혁명의 붉은 피 쏟으며 만세 부르며
반제 해방전에 쓰러졌으며
그가 남긴 유언과 인자한 어머님은
어느 전우가 가슴에 받아 안았느냐?

내 비록 쿠바의 사탕 농장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그 곳 동무들과
마주 서 통성은 한 때 없으나,
내 또 비록 콩고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루뭄바가 남기고 간 전우들의 손목을
힘차게 쥐여 본 일은 없으나.

나의 가슴에 이렇게 그대들을 향하여

뜨거운 우정과 깊고 깊은 신뢰
다함없는 존경이 끓어 번짐은
우리들 모두가
지구 우의 하나의 전호
반 제국주의 전선의 전우들이기 때문.

그러기에 내 가끔
저 브라질 땅에서
천대와 굶주림에 주름이 깊어진
가난한 어느 할아버지의 얼굴을
여기 앉아서도 선히 보는듯 하고
오끼나와의 깊은 섬 속에서
아메리카 놈들의 구두'발에 채우는
불쌍한 어민의 어린 딸자식 모습을
나의 딸자식인양 가슴 아프게 그
려 보기도 하노라.

그립고 다정한
온 세계의 전우들이여!
우리는 지구의 동과 서에서
태평양의 파도 소리와

대서양의 바람 소리를 넘어
서로 부르고 대답하면서
아메리카 도적 놈들을 쳐물리치자!

설사 그대들이 불란서 놈들과 싸우고 있다 해도
또는 영국 놈이나 화란 놈들과 싸우고 있다
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의 원쑤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절대로 자기만 배불러
혼자 게트림하며 전우를 잊지 않으리,
우리는 비록 다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지라도
남조선의 우리 형제를 잊지 않으며
피흘리는 세계의 형제들을 버리지 않으리,

싸우자! 같이 싸우자!
지구 우에서 제국주의가 없어질 그 때까지
그 때까지 우리는 총을 놓지 않으리니
진정한 자유와 평화!
이 고귀한 말은
끝까지 총을 놓지 않은 사람들만이
떳떳하게 말할 권리를 가지리라!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

아메리카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분명히 알리라
력사는 20세기도 후반기—
야만과 미개는 머나 먼 이야기,
인간의 량심은 보석 같이 빛나고
인류의 문명은 해'빛보다 밝아라,

그러나 당신들은 아는가
오늘 아메리카 땅에서는
식인종이 나오고 있다
인간 부스러기들이…

아메리카의 어느 어머니가,
한 마리의 독사를 낳았다면
그 얼마나 저주로운 일이냐!
히틀러가 살아 있어

실크햇트를 점잖이 쓰고
뉴욕의 네거리를 걸어 간다면
그 얼마나 놀랄 일이냐!
그러나 놀라지 말라 모다 사실이거니…

딸라로 빚어진 월가의 네거리에
넥타이를 맨 식인종,
실크햇트를 쓴 사람 버러지,
자동차에 올라 앉은 인간 부스러기,
성경책을 든 도적 놈,
온갖 잡색,
력사의 저주로운 추물들이
제국주의의 고름을 퉁기며
하수도의 오물인듯
뒤섞여 설레이지 않느냐
당신들의 곁에서…

3백여 년 전
당신들의 선조들이 대서양을 건너 간
180 톤짜리 돛대배 《메이 훌라와》호는

오늘 해적의 돛대를 달고
태평양을 건너 왔다,
제비 같이 주둥이를 모아
《몬로》를 떠들던 그 입들이
오늘은
아메리카에서 5천 마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조선을
아메리카의 《방위선》이라 떠든다,
하마 같은 주둥이들을 벌리고…

먹을수록 배고픈 기아 !
살찐 제국주의의 굶주림을 안고
백악관의 고용병들은
《동방의 나라》를 찾아 온다.
신혼비가 없어서
돈'벌이를 왔다는 사나이,
학교 선생보다는
월급이 많아서 전쟁터에 왔다는 사나이,
조선 전쟁쯤
대포 소리 몇 방이면 알아 본다고

《스포츠》 삼아 왔다는 사나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청춘이 한창인 그 이마들에
세계 인민의 락인이 찍히운다,
도적 놈!
식인종!
침략자!
고용병!
돈'벌레!

세계의 선량한 청년들이
자기의 젊은 나이와
먼 앞날의 희망을 헤아리며
자기의 자랑찬
로력의 열매를 헤일 때
아메리카의 고용병들은
조선 인민의 피로써 물든
애인의 금반지 값을 헤인다.
아메리카의 《문명》의 값을…
《몇 명이나 죽였느냐?

열 딸라는 받겠지》

저주가 있으라!
딸라의 한 푼 한 푼에,
저주가 있으라!
아메리카 《문명》에,
원한에 사무쳐 죽은
모든 조선의 부부와 애인의 저주가
놈들의 밤꿈을 온 일생 괴롭히라!

조선에 남편을 보낸
아메리카의 모든 안해들이여
조선에 아들을 보낸
아메리카의 모든 어머니들이여
할머니와 딸을 가진
아메리카의 모든 량심 있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아는가?
당신들의 남편과 아들들이
조선에서 아메리카 청년의 《영예》로
70이 넘은 할머니를 강간했다,

열 한 살 소녀를 륜간했다,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
얼굴을 붉히라 인간의 량심을 위하여!
얼굴을 붉히라 당신들의 어머니와 딸들을 위
  하여!
하드슨 강변에 솟아 있는
말 못 하는 구리쇠의 녀신도
얼굴을 감싸안고
강물 속으로 거꾸러 떨어지리—
아메리카의 모든 개와 곰과 두꺼비들도
얼굴을 붉히고 아메리카를 떠나 가리,
그들도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독사를 낳는 것보다도 더 저주로운
식인종의 어머니가 되지 않으려거든,
구렁이에게 입술을 핥기우기보다도 더 징그
  럽게
인간의 피를 마신
남편의 피묻은 키스를 원하지 않거든

불러 들이라 조선에서
당신들의 아들과 남편들을…

다시 고하노니
우리는 식인종들을
용서치는 않으련다, 한 놈도.
놈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인간의 량심을 보물 같이 지키고
인류의 문명을 영예롭게 수호하리니
한 놈의 식인종도 살려 두지는 않으련다.
과부의 슬픔을 맛보지 않으려거든
아들 잃은 어머니의 불행을 알거든
보내지부터 말라,
관계도 없는 조선 땅에…

조선에 온 청년을 기다려
헛되이 사랑의 키스를 차비하는 사람들이여
《동방의 선물》을 기다려
자랑의 말부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여
사망 통지가 날아 드는 날

땅'바닥에 입술을 비비지 말라!
《선물》 보자기를 헤치고
옷소매 잘려 나간 피묻은 조선 옷이 달려 나와
당신의 목덜미에 휘여감길 때
구원을 찾을 말부터 생각해 두라!

누가 안다드냐?
조선에 온 당신들의
어느 남편 어느 아들이
이미 어느 산허리
이름도 모를 낯설은 산'기슭에
임자 없는 송장으로
까마귀 밥이 되고 있는지?
어느 누가 안다드냐?
바로 당신들이 그의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정의의 총탄에 얻어 맞아
목덜미를 그러쥐고 거꾸러지는지?

오늘도 누구 누구

몇백 몇천의 아메리카 청년이
산 설고 물 설은 조선 땅
이름도 모를 돌바위 밑에
청춘을 구겨 박고 개죽음을 했느냐?
죽고도 영원히 벗지는 못 할
침략자의 락인을 이마에 찍고…
작년 크리스마스엔 집으로 보낸다던
맥아더, 트루맨, 리치웨이 따위들의 보도를 듣고
경솔히 축배 들기를 삼가라!
당신들의 아들과 남편의 죽음을
《축배》를 들어 축하할 수도 있으리니—

생사를 모르겠거든 물어 보라
트루맨에게 물어 보라!
맥아더에게 물어 보라!
리치웨이에게! 마샬에게!
언제 죽였느냐?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어찌하여?…

그러나 또 한 번 물어 보라
트루맨에게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맥아더에게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아들의 살을 깎아
한 점의 비후스틱을 더 썰려 했느냐?
남편의 피를 쏟아
한 방울의 향수를 더 뿌리려 했느냐?
물어 보라!
물어 보라!
당신들에게도…

모든 아메리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안해들이여!
남편이 그립거든
아들이 귀중하거든
당신들도 나서라,
침략을 반대하여!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인민의 기치를 마천루보다도 높이
아메리카 땅 우에도 휘날리게 하라!

— 1951 —

저주의 노래

저주가 어찌 노래로 되랴,
그것은 칼날이며 폭풍
차고 매서운 서리'발,
그것은 마음 속에 지니기조차
힘들고 괴로운 것.

그러나 내 저주하노라
만신의 힘을 다해 저주하노라
미국 놈과 그의 머슴들을
아침저녁 저주하노라.

이럴 때면
나의 팔다리와 머리와
위와 심장도
그리고 크고 작은
열 손'가락 마디마디도

모두 오직
증오로써만 만들어진듯,
나의 몸 200억의
매개 세포로부터 저주하노라.

우줄한 미국 《신사》들의
그 싱거운 낯바닥을 향하여
나의 입가에 떠오르는 이 비웃음의
설핏 지나 가는 그림자만 잡아서
태평양 한가운데 던진다 해도
온 바다'물이 쓰거워지리,
내 백 년 동안 《도》를 닦아
《부처님》의 서른 세 배나 더
《자비》하고 《인자》해진다 하라,
그래도 내
아메리카 《문명》만은 저주하리라,
내 혹시 지나치게 《덕》이 높아져
놈들에 대한 증오마저 잊어 버린다면
그런다면 내 소리치며 일부러
《덕》 없는 자로 굴러 떨어져서라도

증오하리라 양키들을.

내 놈들에게는
오직 저주하기 위하여서만 태여난 사람,
이렇게 나의 온몸에 지닌 저주로 하여
나의 혈액마저 걸어진다 하라,
높아 걱정인 나의 혈압이 더 높아지고
나의 수면에도 해롭다 하라,
그래도 내
우리 땅을 짓밟은
아메리카 파렴치한들을 증오하리라,
그로 하여 나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
사납고 거칠어진다 하라,
그래도 내
저주의 목소리 멈추지 않으리라.

나도 좀 더
아름다운 노래
향기 그윽하고
깊은 사색에 가슴 뿌듯한 시,

이 세상에서 제국주의가 없어진
그 날에 가서도 읽을 맛 있는
그런 노래 쓰기를 배우고 싶노라.

내 스스로 보기에도
무뚝뚝하고 향기 없는
나의 증오의 시편들을 어루만지며
내 때때로 뗀대를 부르쥐고
괴로운 밤을 지새우기도 하노니
싫어서가 아니노라, 결코!
저주의 시를 쓰기도
사랑의 노래 쓰기보다
그리 헐하지는 않은 일.

내 차라리 제국주의의 배때기에
저주의 단도를 석 자나 박아
호박 속 우벼 내듯 왁왁 우벼 낸다면,
또는 나의 이 증오의 주먹으로
양키들의 턱주가리를 답새여
단매에 차무'개 쪼개듯 쪼개 버린다면

나의 이 만신의 증오 풀릴 수도 있으리,
그러나 나는
칼과 주먹으로써가 아니라
나의 시행들로써
놈들의 덜주가리를 쳐야 할 사람,
그렇다면 너무나도 온순하고 부드럽구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휘들은.

그러나 나의 저주의 창기병들아
나의 멸시의 기마병들아
나의 증오의 돌격대들아
달려 나가자 고함 지르며
찌르며 짓'이기며 밟아 버리며
저기 원쑤들이 구불거리는
우리들의 결전장으로!

거기서 너희들
무명의 전사로 쓰러지고
그 옛날 석전에 씌여진
한낱 돌멩이 같이 묻혀 버려도
후세의 사람들은 알아 주리라,

이런 싸움의 시대를 지나
공산주의의 노래 소리가
아름답게 지구 우에 가득 찬 것을.

—1960—

물러 가라! 아메리카

어느 때였는가?—백 년 전이였다.
아메리카가 조선에 처음 통성해 온 것은…
오만한 손님은 《샤만》호 우에서
대포에 기대여 통성—호통을 했다.

례절을 못 배운 이 뜨내기들에게
주인은 버릇을 배워 주었다
《도적에게는 몽둥이가 제일이라》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 대로…

그후 아메리카는 옷차림을 바꾸였다,
칼 대신에 십자가를 들고
목소리도 변했다, 《부드럽게》 《거룩하게》
《아멘! 아멘! 에헴! 아… 멘…》

숱한 사기사, 밀정, 매음녀들이

찬송가와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기도, 전도, 묵도하기를 련습했다.
하여 조선으로! 동방으로!…

《일본이 조선의 땅'덩이를 점령하면
미국은 조선의 〈령혼〉을 점령하라!》…
그러나 이것저것 다 틀려지자
아메리카는 《아멘》도 가면도 동댕이쳤다.

《천사》는 분명 하늘로 날아 왔으나
삐—29 폭격기 우에 앉아 있었고,
아메리카의 《예수》는 조선의 하늘 우에서
《성》스러운 페스트균을 《은혜》롭게 뿌려 주
 었다.

《신화》는 부서지고 눈통은 터지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적투는 끝났다.
그래도 아직 못 물러 가겠단다,
《황금의 나라》—조선에서…

《황금의 나라》? 하기야 어찌 황금 뿐이랴

백금도, 생금도 다 있는 나라!
강물만 퍼담아도 구슬이 고이는 땅,
기후로 말한대도 어찌 《하와이》가 당하리.

그러나 어이 하랴 주인이 있는 것을,
조선은 대대로 조선 인민이
그의 옷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오는 땅!
더 어물거리던 때가 꿰이지리니
《샤만》호를 타고 왔던 너의 하내비들 같이
먼 외국 땅에서 객사하지 않으려면
물러 가라 아메리카! 백 년의 죄악사를 결속
  할 때는 왔다.

— 1958 —

결산하라! 아메리카

봄은 왔건만 저물어 가누나
낡은 자본주의 회계 년도는.
결산을 하자! 아메리카야,
장부를 꺼내 놓으라, 너의 죄악의…

너 이 세상에 생겨 나 300 년,
력대의 자본가들이 긁어 모은
리윤의 총 합계는 그 얼마이냐?
피와 기름과 눈물에 젖은
그 축축한 지페들을 모두 쌓아 놓아도
너의 죄악의 크기를
다 말하지는 못 하리라.

몇 억, 몇 십억의 인간이
통곡하며 가슴 치다 죽어 갔느냐,
너 아메리카—딸라 때문에…?
너로 하여 흘린 인류의 눈물은

흘러 바다로 흘러
태평양 물을 더욱 짜게 했으리.

생각하노라, 생각하노라,
수백만의 그 어린 아기들에게 대하여.
제대로 자랐으면 지금은 아마
유쾌한 선반공, 존경 받는 학자,
어찌 없었으랴 그 속에는
인류가 자랑할 천재와 영웅도…
그러나 그 어린 생명들은 죽어 갔더라,
누더기 속에서 굶주리여서—

너 살진 아메리카야,
너의 몸에 두른 그 보드라운 비단이
그 얼마나 많은 인민의 목을
쇠사슬보다도 무섭게, 사납게
조여 매고 홀치여 숨이 지게 했느냐!

하늘에 사무쳤다 원한은!
인민은 소리친다, 지구의 이 쪽과 저 쪽에서

《결산하라! 아메리카야, 자본주의야!》

나서라! 누구냐 누구냐
자본주의의 마지막 대리인은?

나서려느냐, 네가?—아이젠하워?
나서려느냐, 네가?—둘간?
너 감히 인류의 력사에서
추악한 자본주의의 마지막 상주(喪主)로서,
지폐를 붙들고 통곡하여 보려느냐?
아니면 물러 서라! 물러 서라!

너의 모든 죄악의 값을 받아 내리니
결산을 하자! 아메리카야,
력사의 앞에서, 너의 죄악을.
때는 가까왔다, 너의 마지막.
지구 우에는 새 봄이 왔다,
인류의 새 시대가….

— 1959 —

《하느님》과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말하기 좋아한다
《하느님》과 《예수》에 대해…
부녀자에게 달려들면서도 《하느님》을 찾는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수백 년 동안
동방에서는 황금, 남방에서는 고무
아프리카에서는 흑인을 실어 갔다.
그들은 바로 그 이름으로 조선에도
처음에는 선교사, 다음에는 대포,
마지막엔 파리와 모기를 보내 왔다.

리 승만이도 《하느님》의 아들로서
미국 며느리에 조선옷을 입히여
남조선 인민 앞에 《국모》로 데려 왔다.

《하느님》이 하는 것이 하도 괘씸해

내 그 놈을 붙잡아 불이 나게 따귀를 치니
웬걸! 그 속에서 아메리카가 《아멘!》

— 1958 —

떠드는 아메리카

대양 건너 미국 집에선
1 년 열 두 달 떠드는 소리,
대통령은 마이크통을 두드리며
두꺼비 같은 주둥이를 너불거린다.
《남…한…은…자…유…자…》

유엔 미국 대표는 15 년 동안을
오직 한 마디만 외우고 밥을 먹는다,
마치 줄이 잘못된 헌 레코드판 모양
《우리는 한국에 원조 원조 원조 원조 원조조
조조…》

한편에서는 리 승만, 장 면, 장 개석…
신통히도 같은 것들이 베스를 넣는다
《미국 주인님 미국 주인님 미국 주인님…》

왜 이다지들 떠들어 대는가

불난 집 모양,

《예수》로 백 년,
정탐으로 한 세기,
그래도 안 되여 전쟁으로 또 3 년,
그래도 못 먹은 조선 강토를
《연설》을 해서 먹어 보잰다, 《연설》을…

미안하지만 걷어 치우라,
침방울이 튄다 아메리카 《신사》님들,
두터지는 주둥이로 땅이라도 파지만
자네들의 얇다란 그 입술로야…

떠들려거든 떠들라 하라,
떠들다 성대마저 찢어지면
참대라도 깎아 넣고 떠들라 하라,
우리는 불도젤의 커다란 손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흙을 퍼담아
마지막 웅뎅이를 메워 버리리,
아메리카 개구리들의 울음 소리마저도.

— 1958 —

벌거벗은 아메리카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 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 아메리카는,
그 구린내 나는 알몸뚱이를…

원래 사나운 강도들이 달려들어
연약한 한 녀인을 벌거벗겼으니
어쩌 하랴 수난을 당할 수 밖에,
맹끼를 온몸에 묻히우고 녀인은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기였다.

그러나 오늘 파염
누가 벌거벗었나 인류의 량심 앞에서?
남조선의 한 녀인인가 아니면

《거룩》한 아메리카의 《신사》들인가?

온 세계 사람들이 대답하누나,
《그것은 아메리카! 바로 아메리카 자신!》
그의 문화, 그의 도덕은
20세기 60년대도 바로 정월 초하루'날에
죽 벗고 나섰다, 인류의 면전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벗기지 않았건만
스스로 홀딱 드러내 놓았구나,
그 구리고 구린 제국주의의 썩은 몸뚱아리를.
(나는 시인
수천 수만의 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들만을 골라
그 우에 또 운과 억양을 붙이는 사람,
두꺼비를 보고도 점잖게
《개구리의 사촌》이라 불러 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리 좋은 말 다 골라 봐도

할 수 없구나 달리 말할 수는…)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도
눈에 선히 보인다, 아메리카 《신사》들이
쭉 벌거벗고 워싱톤 네거리로
《문화》를 떠들며 분주히 오고 감이.
라체에 중절모는 어울리지 않건만
그래도 승용차에 푹신히 앉아
쭉 벌거벗은 미국의 은행가들.
나는 상상하노라 《라체의 왕국》을,
모든 위선과 가면마저 벗어 동댕이친 나라.
쭉 벗고 앉은 대통령이며
쭉 벗고 일어 선 국무 장관이며…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

내 온 세계 사람들께 권고하노니
양키들이 당신 앞에 온다면
그 놈이 제아무리 《신사》 같이 입었어도
벌거벗은 놈이라고만 생각하시라.

그렇다, 사실 그렇다!
바로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벗고 날친다.

인류의 문화와 량심에 대한
이 흉측한 도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웨친다, 고함친다
《애 이 께끈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내쫓을 테다,
조선의 밖으로,
지구의 밖으로!》

— 1960 —

차비하라 아메리카여

내 지난날 전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의 고지 영웅의 전호에 높이 서서
무서져 나가는 아메리카를 발 밑에 굽어 보며
세계를 향하여 말하였노라
《아메리카여 얼굴을 붉히라》고…

오늘은 내
조선의 창공에 거연히 솟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중기 우에 높이 올라
죽어 가는 아메리카를 건너다 보며
세계에 향하여 알려 주노라
《림종의 순간이 온다,
차비하라 아메리카여!》

마지막 발악을 한다 병든 아메리카는,
요동을 친다 고함 지른다
뒤집어친다 부둥켜 안는다…
범죄 통계—시속 300 건

매독과 성경책
살인과 향수,
실업자와 켈렌조 묘비…
이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여
아메리카의 문명은 굴러 내린다,
20세기의 후반기 언덕을.

서울에서 도꾜에서 그리고 파리에서도
아메리카의 군인들이 《찦》차를 내몬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굽어 보니
그들은 모두 한 곳으로 달려 가누나,
피 바퀴 자리 그어 가면서

지옥을 향해 쏜살같이 나간다,
무엇이 좋은지 휘파람을 불면서
츄잉껌을 씹으며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며…

자비하라 제국주의 아메리카여!
너의 멸망의 순간이 온다!

— 1959 —

거 지 떼

요사이는 날씨가 더워지는 탓인지
거지떼가 부쩍 설랜다,
지구의 도처에 떼 지어 날은다,
도덕의 세계에서 추방 당한 무리들,
량심을 배반하고 쫓겨 난 족속들,
정신 거지들이 짝 지어 소동한다.

동네마다 후레자식 하나씩은 있다고
일본에는 이께다, 남조선엔 장 면이
유엔에는 함마슐드….
량심들은 몽땅 팔아 탕진해 비리고
모자라서 저의 처자들의 것마저
《록펠러》 은행에 저당 잡혔다.

남은 건 빈 바가지가 아니라
텅텅 빈 두개골 뿐

(하긴 그것도 바가지 비슷은 해)
그러나 꿰여 찬 건 깡통이 아니라
바오라기 같은 금시계'줄들.
상판대기들은 모두 팽과리 같이
두텁고 번질거린다.

국회 의사당 안에서 와글와글
대통령 관저 안에서 득실득실
유엔 본부에서도 장타령을 부른다.
특출한 건 비위 하나 뿐이여서
노래기 회를 한 사발은 마시리.

지구 우의 아기들이 어머니 품 속에서
좀더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거지떼들을 없애야겠다.

화물 자동차 두 대만 가져 오라
저 어디 무인도로 태워 보내자,
아마 두 대면 다 싣고도 남으리라.

— 1960 —

저 주

내 가끔 눈을 감고
낯'익은 서울의 거리 거리를 생각하면
문뜩 떠오르는 미국 놈들의 모습,
이 순간도 놈들은 끼뜩거리며
마치 자기 땅인듯
종로로 명동으로 활개치리니
아, 떨리는 주먹!
그 곳도 사랑하는 내 조국 땅 아니냐!

내 여기 한 편의 시를 써서
남조선 하늘'가에 띄워 보내노니
글'귀들이여 마디마디 칼날이 되여
미국 놈의 털가슴에 꽂히여 가라!

×

남조선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산천초목도 분노에 치를 떨라.
남산도 인왕산도 소리치며 일어 서라.
미국 놈들이 거리에 나서면
담'벽에서 벽돌'장도 튀어 나와
놈들의 낯짝을 후려 갈기라.
놈들이 풀밭에 들어 서면
풀'잎마다 총창이 되고
놈들이 산 우에 올라 가면
돌멩이마다 지뢰로 튀라.
놈들이 철'길에 나서면
강철 레일도 들고 일어 나
놈들의 긴 허리를 꺾어 놓으라
놈들이 강'가에 나서면
강물도 거꾸로 흘러 올라
뼈에 사무친 원한의 물'결을 높이 들고
놈들의 죄악의 덩지를 삼켜 버리라.
놈들이 우리 나라 물을 마시거든
그 방울 방울이 끓는 쇠'물이 되여
놈들의 목구멍을 메우게 하라.
놈들이 그 탐욕의 눈으로

우리 땅 그 무엇을 훔쳐 보려 하거든
한강 기슭의 모래알들이 일제히 날아 와
놈들의 눈'구멍을 메꿔 버리라.
놈들을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해도 달도 별도 빛을 보내지 말라
놈들이 그 기만의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 지껄이려 하거든
바람이여, 증오의 폭풍이여
온 남조선의 쓰레기를 몰아다가
놈들의 입을 틀어 막으라.
놈들이 그 간첩의 귀를 쫑긋거리며
우리 땅의 바람 소리 하나라도
몰래 도적하여 들으려거든
놈들로 하여 15 년 동안
남조선 천지에 가득 차 넘친
그 모든 총'소리와 대포 소리
앓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일시에 울려
그 모든 불행의 소음이
놈들의 귀 속에서 한평생 들리게 하라.
놈들이 남조선 땅에서

앉지도 서지도 움작도 못 하게 하라.
놈들이 저지른 죄악의 값으로 하여
골통을 싸쥐고 엉엉 울게 하라.
오직 죽는 것 하나만은
언제라도 마음 대로 하게 하라.

×

나의 이 저주의 웨침
남조선 하늘로 날아 가
5월의 따스한 날씨에도
찬 서리를 부르게 하라.

— 1960 —

《동리 북》

《동리 북》이라,
그것은 동리에 매달아 놓고
오면 가면서 치는 북.
어른도 친다네,
아이들도 친다네.
그래서 잘 얻어 맞는 사람을
《동리 북》이라고 한다네

세상에는 찾아 다니며 맞는 북,
그런 《북》이 하나 있어
북미 합중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년세도 좋으신데 매'복은 더 좋아
《동리 북》이 아니라 《세계 북》이 됐다네.

남미주에서도 얻어 맞았다네.
북미주에서도 주어 맞았다네.
구라파에서도 열열하게 맞았다네.

아세아에서는 눈썹하게 맞고 있다네.

《동리 북》이야 둥둥 소리나 좋지,
썩은 계란으로 주어 맞은 아이크씨
낯바닥에서는 소리도 안 난다네,
거기도 가죽이 씌워 있긴 하지만…

주어 맞으며 눈코 비비며
아이크씨 생각을 하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인데
이거 원 이럴 수야 있나?…)

암 그래야지!
바로 그래야지!
매'복 좋은 당신을
어찌 치지 않으리.

미국 놈이 온다.
모두 칠 차비를 하자!

— 1960 —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 우에서

론죄하노라 력사의 무대 우에서
너—아메리카
지구 우의 마지막 범죄자를,
너 인류의 최후 반역자를,

자애롭고 엄격한
어머니—력사의 품안에서
인류는 아득한 수십만 년 전 그 날로부터
로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진펄이와 가시밭과 어둠으로 찬
원시의 긴긴 밀림과 동굴을 벗어 나
오늘 지구 우에 해'빛 눈부신
공산주의 락원 앞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아득한 로정에서 인류는
굶주림과 추위와 병마와 싸워 왔고

무지와 몽매의 긴 밤을 지나 왔으며
홍수와 가물과 눈바람을 뚫고 왔으며
배암의 무리 이리의 떼들도 쳐물려 왔으나
그 모든 험난한 싸움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사납고 오래인 결사전은
바로 인간 자신 속에서 생겨 나는
온갖 도적 반역자 기생충들과의 싸움이였다.

자기의 팔다리를 놀리고
이마에 땀 흘려서만 살 줄 아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인간의 대렬 속에서
어느새 변종들이 나타나
그들은 승냥이와 빈대와 같이
낮잠과 도적질로 사는 법을 배웠나니
지금 그들의 족속은
태평양 한가운데 그의 큰집을 두고
지구의 구석구석에
벼룩이 퍼지듯 퍼지여 났다.

금화와 지폐 속에서 생겨 나
그것을 먹고 사는 이 기생충 부대는

지금 화약통을 쌓아 놓으며
인류가 걸어 온 모든 행로와
그의 모든 문화와 아름다움과
그의 모든 도덕과 장래 운명에
마지막 결투를 걸고 나섰다.
놈들은 지구를 통채로
아메리카 《킹 콩》들이 지배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구'뎅이를
송두리째 까 없애겠단다.

인류가 싸워 온 온갖 원쑤들 중에서
양키의 무리와 같은
그런 반역의 무리는 더 없었나니
인간이 지구 우에 태여난 이후
동서 고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악덕과 파렴치와 간악함을
아메리카는 집대성하고 《완성》하였다
《네로》는 우유로 채운 목욕탕 앞에서
벌거벗고 비파를 타며 노래 불렀다 하랴,
양키들은 인간의 피로 채운 목욕탕에서
인간의 백골을 두드리며 《쟈즈》를 부른다

《진시황》은 책과 선비들을 불살랐다 하라
아메리카는 력사와 인류를 통채로 불사르련다
맹수는 굶주리여 사람을 물어 간다 하라
양키들은 배부른 나머지
심심풀이로 사람을 죽인다.

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대포를 몰고 우리 땅에 덤벼 들었을 때
이 인간의 변종들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선의 인민들은 결사전에 나섰다.

다만 자기 어버이와 안해와
아들딸들을 위하여서만은 아니였다,
다만 자기 한 나라
한 강토를 위하여서만도 아니였다,
이 아메리카의 《킹 콩》들이
온 지구 우의 주인이 되지 못 하게
하기 위하여서도,
인류가 수천 수만 년
간고한 걸음 걸음으로 걸어 나온
그 문화의 긴 길을 다시 되돌아

하루 아침에 다시 벌거벗고
원시의 동굴 안에 들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지구 밖에서 누가 찾아 온대도
지구 우에 사는 인간과 돼지와
원숭이들을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도
조선의 청년들은 목숨을 내걸고
《인간 짐승》들과의 결사전에 나섰나니
그들은 자기의 고귀한 피로써
인간과 양키와를 구별해 놓았으며
인간의 존엄 그의 영예를 수호하였다

내 력사가는 아니나 시인으로 말하노니
아메리카는 바로 조선 땅에서
그의 마지막 멸망을 시작하였다,
조선의 산천은
그의 인민과 같이 아름다와서
지구의 공원이라고도 할 만 하지만
그의 산악은 또한 높고 높아서
불의와 악덕 앞에는

한 걸음도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

하여 태평양을 넘어 온 아메리카의 대포는
십자가와 함께 함정'골 밑에 꺾어져 굴고
《신성》한 아메리카의 《신화집》은
산산이 찢어져 휴지와 같이
력사의 들판에 뒹굴고 있다.
패전 장군인 트루맨과 맥아더 아이젠하워…
이 모든 인간 오작품들은
히틀러 도죠의 뒤에 줄을 지으며
창고에 들어 갈 차례를 기다리고
미 제국주의는 그의 더러운 이름으로
인류 사회의 마지막
《범죄자 명부》를 꾸미기 시작했다.

지금 인류 력사는
그의 유구한 과정에서
마지막 한 놈의 반역자가 죽어 가는
뜻 깊은 순간에 서 있다.
베루가 난다, 막이 내리련다,

착취와 침략이 등장하던
인류의 이야기 제 1 막이 내리련다.
뒤'이어 력사의 무대 우에는
한 마리의 인간 버러지도 없이
오직 인간—천사들만이 나와
공산주의의 대합창 대군무를 하게 되리라.

— 1960 —

내가 그 놈을 《지옥》으로 보내 줄 테다!

박 정희가 권총을 차고 앉아
목탁을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
검은 안경 번뜩거리며 《관세음보살》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박개가 《불교》를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지리산 깊은 산속 어느 절'간에
천여 년을 전해 오던 《부처》 하나가
—원 말세가 되니 별 새끼가 다…
  하필 믿을 게 없어 나를 다?
  내 이 노릇 안 했으면
  이런 수치야 당하지 않지!
화가 난 나머지 거꾸로 떨어져
머리를 까고 《자살》을 했다 한다…

자살도 하 많은 세상이니
그것도 있을 법 한 일.

그런데 이렇게 되니 박개는
누구의 《은덕》으로 《지옥》에나마 가나?

내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그 놈을 《지옥》으로 보내 줄 테다!
  내 비록 《부처》님 같이 《자비》하진 못 하나
  박 정희에게 《선심》 한 번 쓰리니
  내가 그 놈을 《지옥》에 보내 줄 테다.

  총으로 쏘지도 않고
  단칼에 베지도 않고
  목을 달지도 않고
  약을 먹이지도 않고
  그 놈은 꼭 쳐죽일 테다,
  그 놈이 한평생을 《부처》보다 더 믿는
  왜놈의 게다짝과 미국 엠•피 몽둥이로…

미친 개는 그렇게 죽는 것이
가장 제 격에 맞는듯이.

《인구》 문제

—박 정희에게—

《민생》을 《구원》한다고
자네가 내놓은 유일한 해결책이
《애당초 태어나지부터 말라!》
그래서 《산아 제한》.

그러나 유일한 해결책도 때가 좀 늦었네
하려거든 벌써 수십 년 전에
꼭 한 번만은 했어야 할 일.
자네 같은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자네 어미에게만은 한 번…

하기는 아직도 늦지는 않네,
자네만은 부디 실시를 하게.
내 맡사스의 《인구론》은 절대 반대하지만
자네 같은 《인구》(人狗)는 더 늘가 걱정일세.

먹기 잘 하는 아메리카

먹고 있구나 온종일
잘도 먹는다 아메리카
질긴질긴 씹으며
커다란 입을 벌리고
껌을 씹는다 아메리카,

잠'자리에 누워서도
중절모를 쓰면서도
악수를 하면서도
먹는다 질긴질긴
먹는다 먹는다 온종일.

변소'간에 들어 가면서 념적념적
나오면서 념적념적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질긴질긴
도덕도
렴치도

성경책도
가죽 구두도…

일본에서 그렇게 먹고 있다
콩고에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다
토이기에서 그렇게.
그렇게 남조선에서도 18 번을 먹고 있다.

그들은 온 지구'덩이를 먹으련다
뽕 잘 먹는 누에와 같이.

누에는 명주실을 토하지만
아메리카는 피를 토하리라.

아메리카의 높이

이태리의 지리학자 《아메리고》가
새로운 대륙을 축복하노라
자기의 이름을 따 네게 준 것은
3백 년 전에 불과하지만—
네 이름 우에 쌓여진 것은
수만 년 분도 더 되는구나.

태평양 한 끝에 우뚝 솟아
덜컥거리며 와삭거리며
네가 자랑하는 그 《문명》과
마천루의 높이는 무엇이더냐?

벌써 2천 년 전 중국 땅에서
양자강구로 흘러 내려 간
《진시황》의 분서의 검은 재가
네 땅에 흘러 가서 새 불'길 달려
인류의 문명을 태우고 있다,

《네로》의 손을 씻은 살륙의 피가
오늘은 그 곳에 저수지를 이루어
살인 장군들의 수영장이 되였다,
히틀러와 무쏘리니의 망령들이
너의 품안에서 《안식터》를 구했다,
효성 많은 손자 집에 할아버지 온듯이…

너는 인류의 죄악의 퇴적장
너의 마천루의 높이는
네가 도달한 죄악의 높이!
수천 수만 년의 력사의 흐름 우에
동서에서 흘러 나간 모든 죄악이
모이고 합치여 너의 땅 우에
아메리카 《문명》으로 쌓이여졌다.

범죄의 왕국 아메리카!
땅 우에 솟아 난 지옥이여!
지구의 한 끝에 생겨 난 종처!
이번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물이
동서에서 너를 일시에 씻어 내리.

정 준 기

장관의 《출격》

아메리카의
고명한 장관 어른은
투우장에 들어 가는 황소처럼
코'김이 사나왔다.

《권위》 있는 수원들을
한 줄에 거느리고
그 날 회의장으로 들어 갈 때는

《덜레스의 힘의 웅변이

공산주의를 재판한다》고?
퍼뜨린 소문은
장관이 나타나자
기자들의 대기실에 숭얼거린다.

그들은 벌써
명령을 받들고 화선에 기여 나와
사격을 개시하였다.

용맹한 《장군》의 지휘 하에는
연약한 졸병이 없는 법이라
신문 책임자 각하는 수선을 떤다
이제— 장관의 입술에
거품이 일어 날
연설 원고 사본은 슬슬 넘겨 준다
미리부터 졸개들의 주머니 속에….

《첫 마디를 시작하면
홍수처럼 통신을 몰아 보내라》
두 눈을 껌뻑

거동전의 신호를 잊지 않았다.

잘 뛰는 말에게
경마표나 사듯이
그 패거리 팔꿈치 들먹거릴 때,

《시작이다!》
복도에서 뭉굴어 오는
목갈린 소리

주머니의 원고를 손에 내들고
타자기 앞으로
그 패거리 돌진한다.

바로 이 때
무더운 대기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며
랑랑히 울리는 목소리
조선의 목소리.

그들의 타자기는
갈광절광
우리의 타자기는
행진곡을 타듯이
장엄히 친다.

피에 젖은 어린것을
품에 안고 부르짖던
어머니들의 심장의 호소를…

야수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긴 사람들이 웨치던
불타는 념원의 말을!

수천 마리의 비둘기
푸른 하늘에 높이 날아 오른다
전파는 지구 우를 나래쳐 간다.

꽃이 피는 봄이건만
찬서리 스며 드는듯

말 한 마디 못 하고 출구에 나와 선,
장관의 입술은 파랗게 떨고

시들어진 신문 책임자 각하는
도적 놈의 물건인 양
원고 뭉치 감춘다

그리고
된불에 눈이 뒤집힌
여우가 제굴로 뛰여 가듯이
장관은 자동차를 내몬다.
회색빛 스프링에
얼굴을 파묻은 채

—1954. 7—

외국의 도시에서

그것은 하우스 오브 프레스의
다방에서였다.
담화를 요청한 이 도시의
나이 많은 녀류 기자와
나는 탁자에 마주 앉았다.
창 너머 멀리 아르쁘스의 련봉이
잘 보이는 청명한 날이였다.

웃음과 더불어
수다스러운 인사의 말은
어느 날인가 우리를 비방한
그의 탐방 기사를 회상시키나
나는 상냥하게 응대하였다.

《나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당신의 나라에 대학은,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나의 흥미를 끌어요»

눈'섭의 움직임에서라도
허물을 찾으려는듯
연필을 잡으며 쳐다볼 때,
나는 수'자와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꾸밈도 가식도 없이 말하여 주었다.

어쩌 된 일인가 두 눈이 휘둥글
녀기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렇게도 학교! 학생이 많아요!?
그렇게도 부자가 많아요!?»
이런 경우 «존경하는» 녀류 기자 앞에서
어떻게 사회학 독본이야 들 수 있으랴.

«부자로 말하면 우리 나라 사람은
모두다 부자지요.

이것은 부자의 표식입니다》
나는 가슴에 반짝이는 오각별 휘장을 가리켰다.

벙벙히 앉아 있는 그 녀자에게
나는 묻지 않았다.
쓰레기를 뒤지는
이 도시의 실업자에 대하여.
바이올린을 켜면서 걸식하는
이 거리 예술가에 대하여
나는 묻지 않았다.

《당신을 위하여
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나라로 오십시오—》
거리에 나서니 내 조국의 모습은
멀리 아르쁘스보다도 더 높이
눈 앞에 치솟아 손'짓하더라.

※ 하우스 오브 프레스—신문 기자의 집

—1955. 3—

각하님에게 《영광》이 있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것을
설사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각하가
절대로 《정직》하다는 것만은
월가의 주인들처럼 《정직》하다는 것만은—

어찌 한두 번만이랴
그것을 증명한 때가,
남조선 땅을 군화로 짓밟고도
조선 사람을 위함이라고,
살인 무기 끌어 들이고도
평화를 원함이라고—.

매음부 절개 지킬 때 있다 하여도
각하님의 《정직》함이야 변할 때 있으랴,
이번에는 사무실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서
목소리도 묵직이 성명하였다.
《우리는 미주의 여러 나라에
식민주의 쓴 일은 없노라
친선만을 베풀었노라》.

성명에 잇닿아 사실이 뒤따랐다
미국의 군용 비행기들은
큐바의 사탕 공장에 《친선》의 폭탄을 던지
였다.
미국의 무장 비적들은 《의례 방문》차
큐바에 기여 올랐다

그래서 각하님은
목청을 돋굴 수 밖에—
《우리와 미주 나라들과의 사이는
영광스러운 력사를 가졌노라》
기자 앞에서 또다시 웨쳤다.

참말로 그 《영광》 각하님이 몸소
오붓이 맛볼 줄은 자신도 몰랐으리,
《강철의 경비망》을 늘이고
각하님은 남미주로 《친선》의 길 떠났다.

가는 인사에 오는 인사라
가는 곳 이르는 곳 그 어디서나
대우는 극진하였더란다.
거리에서 《환영》의 폭탄이 련달아 터져
미국 회사 건물이 나자빠지고
성조기는 갈기갈기 찢기였다.

《미제 침략자는 물러 가라!
미국 식민주의를 타도하라!》
주먹의 수풀에 각하님의
가슴이 설레이고
경찰이 내뿜은 최루탄 가스에
각하님은 얼굴을 싸쥐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였다

미국의 뜨거운 《친선》에 보답하는
이런 사실 일일이 어찌 다 말하랴
그래서 각하님은 워싱톤에 돌아 와
피'발 선 두 눈을 슴벅이며
목소리도 점잖게 말했다
《성대한 환영에 감사를 드리노라》

《정직》한 나라의 《정직》한 대통령
아이크씨에게 《영광》이 있었다.
맥악관이 떠들어 댐은
당연한 일이라 하리.

—1960 3—

미국의 개떼들

남녘 땅 오산에서는
사람들이 밤'잠도 편히 못 잔다.
파주, 인천, 그 어디나 다름 없이
마음놓고 문 밖 출입도 하지 못 한다.

둔박한 철갑모를
코'등에까지 눌러 쓰고
누런 군복 허리에 권총을 지른 놈들
벌건 눈알 굴리며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

한 손에는 방망이를 들고
한 손에는 개 목줄을 쥐였는데

헤 묵은 '세빠트들이
주인처럼 사람을 노려 보며
이'발을 다신다, 앞발로 땅을 허빈다.

장교 놈은 향수 내를 피우고
졸병은 껌을 씹으며
개들은 털빛을 뽐내거니,
누가 다르랴 이들이 다 같이
《문명한 미국》의 어엿한 식솔이란다.

백악관의 나리님네들
목청껏 떠드는
《한국의 벗》이며,
《자유 세계의 전사》들이란다

그들에게 《친선》의 정은 충만도 하여
녀인이 지나 가자
철갑모는 소리친다,

어린이가 지나 가자《물어라 물어라》소리친다,
그러면 개들은 사납게 짖으며 덤빈다,

장교 놈과 졸병과 개들이 한 떼가 되여
녀인을 물고 때리고,
어린이를 피투성이로 만든다.
월가의 금고를 지키는
미국의 개떼들이
사람들을 해친다

개 발톱을 드러낸 미국이
개 이'발을 드러낸 미국이
인간의 자존심을 물어 뜯으며
인류의 량심과 도의를 물어 뜯는다.

이리하여 미국의《자유》는
찬란히 빛나거니
딸라와 술과 뼈다귀가
주인을 섬기는 노복들을 위로하리라,

남녘 땅 오산에서는

사람들이 밤'잠도 편히 못 잔다
그러나 거기에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파주, 인천 그 어데나 다름 없이,
슬기로운 조선 사람이 살고 있다

민족의 영예는 청청한 송죽 같이 푸르거니,
분노의 불'길로 벼려 낸 무쇠로
자갈을 만들어 개떼들의 아가리에 물리리라,
겨레의 세찬 발'길로
바다 건너 제 굴로 몰아 내리라,

물고 뜯고 아우성치는 미국,
그 탐람한 야수들의 불꽃으로 몰아 내리라.

—1952. 7—

정 하 천

원쑤들은 떠들어 댄다

우리는 알고 있다
북미 합중국의 한 젊은이― 아이스레이를,
세계에서 첫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그를,
그로 하여 펜따곤의 장군들로부터
영웅으로 떠받들린 그를,
특별 《공군 십자 훈장》을 달고
례배당에서 신부와 입맞추던 그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후 그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밤은 밤마다 불붙는 지옥

그는 꿈 속의 지옥에서 헤매이다가
마침내 미치광이가 되여 버렸다
안해도 친구들도 그에게서 떠나 갔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텍사스주의 한 미치광이
어제의 《원자 영웅》을.

우리는 또 알고 있다
북미 합중국의 한 장군, 포레스텔을,
신성한 합중국의 기쁨도 번영도
원자 폭탄이 가져다 준다던 그를,
로씨야도 공산주의도
그것으로 쓸어 버려야 한다던 그를
그로 하여 마침내
국방 장관의 벼슬까지 가지게 된 그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후 그가 어떻게 되였는가를,
밤마다 그의 잠'자리 우에서
원자 폭탄이 번쩍거렸다

페리랜드의 베치돈 병원도
그를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했다,
하여 또 한 사람의 원자 미치광이
밤도 깊은 오전 2시
16 층 높은 창문에서 뛰여 내렸다.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그의 이름 포도 우에
어지러운 피로써 얼룩져 있음을.

*　　　　　*

흐린 날의 개구리들처럼
원쑤들은 떠들어 댄다,
구름이 걷히라고 야단들인가?
흐린 날의 개구리들처럼
원쑤들은 떠들어 댄다
아메리카의 자유를
조선에서 지켜야 한다고,
원자 무기도 유엔의 《사령부》도
조선에 끌어 들여야 한다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하다고.

너희들은 잊고 있는가?
원자 미치광이들의 신세를.
또 혹은 잊고 있는가?
조선 땅에서 치욕스럽게 무릎을 꿇
1953년 7월 27일의 교훈을.
그래 잊었다 하라
그러나 세월은 사리 밝은 법
아무도 평화를 짓밟지 못 한다!

《걷어 치우라! 원자 전쟁의 소동을》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 가라!》
우리는 목청을 돋구어 웨친다.
온 천지가 뒤흔들리게, 메아리치게.
만일 너희들이 이 목소리 또한 잊게 된다면
너희들 자신이 이제 말하게 되리라,
아이스레이처럼, 포레스텔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 1957 —

누가 더 나으냐?

교회당의 종들은 십자가에 매여 달린다
정승집 마나님 굿거리 무당에게 매여 달린다
욕심 많은 놀부는 보수박에 매여 달린다.

워싱톤의 나으리들은 원자탄에 매여 달린다
화약 냄새에 코'구멍 벌름거리며
리 승만은 워싱톤에 매여 달린다,

큰 비 내린 뒤
골짜기도 벌판도 삼켜 버린 강물
사품치며 소용돌이치며 흘러 가는데

웅덩이에서 밀려 나온 개구리 나무토막에 매
  여 달린다
바다로, 황천길로 떠내려 가는 줄 알지도 못
  하고
천하의 황제가 되였노라 목청껏 울면서 뽐
  낸다.

그래 누가 더 나으냐?
워싱톤의 나으리들이냐? 리 승만이냐?
아니면 바다로 떠내려 가는 개구리이냐?

—1958—

터놓고 하는 말

수소탄으로
공산주의를 태워 없애겠다고?
아메리카의 번영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히틀러가 그렇게 했지
공사주의를 산산쪼각 내라고
비행기와 땅크의 사단들 앞에서
코'수염 풀떡거리며 불호령했지
허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가 산산쪼각이 났지
뼈다귀 하나 추지 못 했지.

하느님의 뜻으로
공산주의를 쓸어 없애겠다고?

아메리카의 번영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번대머리 도조가 그렇게 했지
살아 있는 귀신—《미까도》의 뜻으로
공산주의를 끝장 내겠다고
서슬 푸른 환도를 휘둘러 대였지
허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제가 끝장이 났지
대롱대롱 바'줄에 매여 달렸지.

너희에게 충성 다하는 투사들이 또한 있다고?
아메리카의 영광을 위하여
바다의 동쪽과 서쪽에서
그들은 공산주의를 맞받아 돌진한다고?
그래 카리브 해안에서
목대 부러진 바티스타를 두고
서울 장안 《경무대》에서
허리 꺾어진 리 승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아직도 철없이 짖어 대는

그 비루먹은 개들을 두고
그 거적 송장'감들을 두고 하는 말인가?

너 아메리카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터놓고 말해야겠다
피끓는 자유의 노래
격랑처럼, 불'길처럼
온 지구를 뒤번지거니
파도는 너를 삼켜 버리고
불'길은 너를 태워 없애리
너의 죽은 넋을 위하여
상복 입은 까마귀가 곡을 해 주리.

—1962—

박 산 운

양키 병정

《U•S》투구 아래
항시 무엇을 질근거리는 주둥이,
부숭부숭 털 난 손'등으로
흘러 내리는 코를 훔치며
놈은 저렇게 보초막 앞에 있다.

이따금 드러내는 이'바디 사이로
포만해 가쁜 숨'소리를 내며
짐승 같은 악취를 뿜어 내더니
놈은 또 할일 없이
제 호주머니를 열심히 들추고 있다.

우으로 삐여져 나온 놈의 두 귀가

돌연 놀란듯 주빗거린다
우리측 련락 군관이 기르고 있는
비둘기가 날개치며 날아 오르는 소리에—
우리 불판에서 파도치는
곱나락 떨어 오는 소리에—

그러나 놈의 얼어 붙은 눈알엔
가을 하늘도 비치지 않는다
또다시 놈은 코를 흘찌거리고
또다시 두 다리갱이를 폈다 굽혔다…

인제, 략탈과 착취와 만마에 부식된
놈의 두뇌를 자극하는 것은
오직, 피비린 화약내와
아이들과 부녀자들의 비명—
놈은 또 버릇처럼 코를 내민다.

그러나 조선의 가을 바람이
세찬 서리를 품고
기름진 놈의 목덜미를 치자

또다시 흠칫 눈을 뜨고
또다시 놈은 제자리에 돌아 선다…

남의 땅을 탐내여
남의 나라 짓밟던 그 날로부터
제 손으로 끌어 온 이리 같은 세월이
놈의 심장을 사정 없이 물어 뜯어—

보라, 산 채로 썩어져 가고 있는
저 놈이,
코를 훌쩍거리며 껌을 질근거리며
진종일 제 호주머니를 들추고 있는
저것이
하느님을 믿는 양키 병정,
인간의 탈을 쓴 야수이다!

백척 간두

먹을수록 냠냠
미국 신사 구미 따라
《남한 시장》 맹댕마다
올라 간다 또
쌀 값이, 탄 값이
  사냥'개 값이!

천장도 하늘도 몰라 보는
남조선 시세는
동, 서, 남, 북,
천하가 다 아는 것.

그러나 이번만은
초음과 속도—

리 승만과 장 승만이 타고 간
그 미국제 캐트더까지도
그 속도만은 따라잡질 못 했거니.

어허! 올라 가는 개값 따라
빨리도 올라 갔네
높이도 올라 갔네
너섯 달 만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백척 간두
-높은 꼭대기로!

간들간들 달라붙은
백척 간두에서
눈은 떤다…바람이 인다…
저 아래는 입을 벌린
력사의 쓰레기통.

《대장》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나?
무엇이 놈을 기다리고 있나?

우뢰를 몰고 오는 남녘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양키 주구를 똑바로 노려 보며
삼척 동자들도 입을 모아 대답한다.

…기다린다, 저 놈을,
《대장》 다음엔
졸장이, 끝장이!
기다린다, 저 놈들을,
쓰레기통이,
놈들을 쓸어 버릴 청소부들이!

《재건》 타령

미국 상전 구령 대로
녹쓴 《반공》 방패
한 손에 들고

—재건!
—개전!

백악관의 대본 따라
외우는 대사,
양키 주구들의 재건 타령일다.

미친 칼을 휘두르며
고래고래 고함 소리,

시끄럽기 짝이 없는 《재건》 타령에,
헐벗은 남녘 땅
나무 우에 앉아 있던
까마귀들도 까욱까욱
날아 가며 욕한다.

—재건! 재건!
—까욱! 까욱!

무엇을 재건하나?
남조선 천지에,
까마귀가 날아 가며
까욱거린다.

—무법과 악법에
구악과 구폐.
목부러진 리 승만의
매국 동상 재건이지!

그 우에, 신악 신폐

살살이 《안방》정치,

절량과 실업과 보리'고개는
부드러운 미소와
상냥한 걸음새로 넘어 서라는
계엄령 하의
　　《명랑 생활 운동》이지!

—재건! 재건!
—까욱! 까욱!

양키 주구들의
재건 놀음판에
이마적에 와서는…

그다지 먼 옛날도 아닌
8월 15일 그 날 그 새벽에
현해탄 건너 줄행랑을 놓은
일제의 게다짝마저—

《남한》 재건 거리를
활보해 보잔다!
저도 한 몫 단단히
《재건》해 보잔다!

양키의 주구들

8. 15. 양키들은 내보냈다
길들인 주구 하나—
녹쓴 백악관의 무기고에서
고르고 다시 고른 미국식 《민주주의》,
《반공》 방패도 위엄차게
갓 씌우고 당나귀 태워
매국 주구—리 승만을.

모가지에 달아 준 방울이…
딸라가 딸랑딸랑…
딸라가 구을어 왔다
태평양 너머로
승산 없는 투전판
남조선으로.

개는 개짓을 했거니—
《사사 오입》으로, 전쟁으로
매국 조약 협정으로,
제 주인 명령으로.

몰아 갔다 그 놈을,
청년 학도들은—
대구로, 마산으로
종로 네거리로
맨주먹으로,
알가슴으로
4월의 광장으로.

《이 놈!》…
내리친 몽둥이,
날아 갔다, 개 값으로
태평양을 도로 건너
하와이 쪽으로…

솟았다, 불'길이,

떨어졌다, 불'덩이가,
양키의 발'등에,
양키는 골라 냈다
또 하나의 주구를—

딸랑딸랑…
연미복을 입히고
(제 갈 길을 잘 살피게
안경까지 끼워서)
내보냈다, 경무대로.

방패도 그 방패,
이'발도 그 이'발,
나발도 그 나발
길도 그 길.

개는 역시 개짓을 했거니
움 돋는 4월의 꽃밭을 짓'이기며
—《복지 사회》다…아멘!
—《반공 친미》다…아멘!

—《민주주의 전람장》이다…아멘!

흘러 갔다, 4월이
흘렀다, 또…
어른들과 아이들의 피눈물이,
흘렀다, 또 일 년 열두 달이,
부황증에 걸린 《복지 사회》에서.

또 올라 갔다, 쌀 값이…
올라 갔다, 주먹이,
올라 갔다, 불'길이,
양키 발'등 우에, 목덜미 우에,
더 많이, 더 자주, 더 세차게!

양키는 곤두섰다, 온 세계 앞에서,
양키는 내댔다, 마지막 투전 패짝,
마지막 《왕패》를—
…새벽 어둠 속에, 김포에다
미친 개 무리를 풀어 놓았다.

방패도 그 방패
발톱도, 그 발톱,
나발도 그 나발
길도 그 길,
다만 갈아 입힌 미국제 군복.

미친개는 싸다녔다
한 해가 넘도록—
사람들의 집 앞을,
정당과 사회 단체 사무실 앞을,
방송국과 신문사 진물 안팎을.

그러나, 일어 섰다, 인민들은,
피 흐르는 거리에서—
단단하 대문에 빗장을 걸고.
미친개에 안겨 줄
몽둥이를 들고.
양키 장사치의
뒤'덜미를 틀어 쥐고!

개에게는 개값을!
개에게는 개죽음을!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 오는
조선의 밝은 례절임을
온 세상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거니!

케네디에게!

흔히 《서방》측 사람들은
그대의 턱 아래 몹시 보기 흉한
붉은 혹이 났다지만,
미국서도 미인으로 이름 떨치는
그대 부인의 명예를 위해
정당하게, 나는 그것을 부정하노니
그대의 턱 밑에는 붉은 혹이 없다.

…아니다, 나는 미국의 턱 아래 붉은
우리의 형제국 큐바를 두고
지금 그대와 론하렴이 아니다
그대 입에, 큐바의 사탕 맛이
아무리 잊히지 않아. 잠이 오지 않을망정
큐바는 영원히 큐바 사람의 것이니

지금 나의 화제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대가 혹을 떼려다
혹을 하나 더 붙였을망정.
그것이 그대의 얼굴이 아닌,
곱사등이…등 우에 붙였을망정.

아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그렇다, 단 한 가지만 그대에게 말키 위해
그대의 보좌관과 행정부를 걸침 없이
똑바로 갈 수 있는 시인의 권리로써
오직 한 가지…그대가 그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하여—
《언커크》를 시켜 그대가 자랑하는
그것이 《남한》에서 거둔 그 성과에 대해
그대와 말키 위해 여기 섰노라.

《남한》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
그대의 변함없는 그 주장 대로.
그렇다, 《자유》가 있다—
양키들이 3군을 지휘할 자유가,
양키들이 조선 처녀의 머리를 깎아 내고

옷을 벗겨 미국제 뗑끼 칠을 할 자유가.
세파드를 부추겨 인권을 물어 뜯고
전브'대에 매여 단 후 킬킬거리는 자유가,

대낮에 산판에서 나무하는 농민이나
들녘에서 나물 캐는 어린 소녀들을
느닷없이 렵총으로 사살한 후
꿩인가 해서…오리인가 해서 쐈다고
뻔뻔을 피우는 그 자유,
양키들이 주인 행세할 그 자유,
조선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죄 없이 맞아 죽는 한에 있어서도
미국식 민주주의가 보장한다, 그 자유를!

그렇다 한국에는 더 많은 자유가 있다,
그대의 변함 없는 그 성명 대로,
그대가 최상의 청렴성과 충실성의 메달을 좋여 준
그 군사 정권의 《헌법》에도 명시된 자유,
로력할 수 있는 인구의 60%가
실업과 기아에 허덕이는 땅에서

《근로의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권리》까지 있다.

뿐이랴,
자식들의 입에 독약을 먹여 주고 함께 숨지는
일가 집단 자살자들이 속출하는 땅에서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그대가 극구 찬양한 그 《정권》의 《헌법》은
제 30 조에서 뚜렷이 규정해 주고 있다.

케네디 군!
그대는 또 자랑할 수 있다
이 밖에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것을 위해 베픈 아메리카의 원조에
대하여—
하루 동안에 5,196 명이 재판을 받고
단 30 초에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남한》의 눈부신 부흥상에 대하여.

그러나, 그대에게 가까운

《서방》측 사람들까지
미국 식민지—《대한 민국》을 가리켜
구더기가 끓는 쓰레기통이라 부르고 있으니
이것은 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이것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그대의 귀중한 아침 시간을
이 이상 더 뺏지 않기 위해
내가 대신 한 마디 일러 주노니
—쓰레기와 구더기들을 깨끗이 쓸어 버릴
조선의 청소부들이 두 팔 걷고 일어 섰다
당장, 손을 떼고 물러 가라,
너희들이 가져 온 것은
하나도 빠짐 없이 걷어 가는 게 좋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지금, 군과 군의 아름다운 부인이 마주 앉은
그 신선한 아침 식탁을 위해서도
매우 좋을 것이다.
카리브해의 물맛도 쓰겁지만,
태평양의 물맛도 달지는 않을 것이니—

허 남 기

《원 조》

일본 속담에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고 한다
박 서방
이 말을 알아 듣겠소?
임자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나라
이 나라의 《천황페하》를 위해서라면
목숨 하나 둘쯤은
마땅히 버리겠다고 맹세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던져 주는
그리고 저 《문명》한 나라
아메리카 합중국의 국무 장관과
대통령이 주는 것이라서

무엇이나 감지덕지하는 꼴은
그거야 박 서방
거러지의 맘'보라는 거요
어떤 《원조》라도
낚시 바늘이 숨겨 있고
어떤 《원조》라도
카바이드가 감춰져 있어
한 번만 넙적 물기만 하는 날이면
그것은 영락없이
낚시'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단 말이요

더구나
너희 같은 나부랭이들이
흰 배때길 드러내고 뻐드러진다면
그거야 대찬성이지만
죽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남조선의
그 많은 가난한 동포들이라
우리들은 거절한다!
남조선을

너와
네 상전들의
낚시터로 삼는 것은
결단코 거절한다!

박 종 문

허수아비 장군

군사 정권이 보낸
허수아비 장군
오늘도 판문점 회의장에
덤덤히 앉아 있다.

오각별 찬연한 공화국기와
아메리카가 도용한 《유엔》 기'발이
마주 놓인 탁자 앞
상전의 옆구리에
그림자인 양 붙어 있다.

두터운 낯가죽 씰룩이며

워싱톤의 《특사》는
《대한 민국》의 《권리》에
피'대를 세워도

바로 그 《한국군》의 《장군》은
물끄러미 천장만 치여다 보고
그것도 싫증 나면
크게 입을 벌려 하품도 하여 보고
그러다간 스르르 눈을 감누나.

요람 속에 흔들려 자장가를 듣는 건가,
대양에 배를 띄워 꿈 나라로 가는 건가,
건들건들 《장군》은
노젓기에 명수로다.

이웃고 쏟아지는 폭포 같은
조선 대표의 격찬 목소리에
불맞은 노루마냥
후다닥 놀라 깬 《장군》

두리번두리번 회의장 살펴 보다
상전의 눈총 맞고
그만 맥없이 고개 떨군다.

흥미도 없으리
졸음도 오리
꿔 온 보리'자루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할 일 없이 지켜 앉아야만 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한 조각 민족의 량심이라도 있었다면
그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도 해 보았으련만,

조선 땅 이 한복판에서
민족의 오늘에 대하여
나라의 래일에 대하여
불'길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회의에서
입도 귀도 틀어 막고 앉아 있어야 할

그 허수아비 신세를—

허나 어찌 하랴
상전이 던져 주는 빵 부스러기에
세상에 태여날 때 혈관 속에 간직했던
순결한 그 조선의 피도
이제는 흐리여 더러워지고
넓은 대양 건너 멀리 가 있으니…

군사 정권이 보낸
허수아비 장군은
오늘도 여기 판문점 회의장에
덤덤히 앉아 있다
마치 돌부처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리 맥

우리는 미제 양키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1961년 4월 15일 조선의 제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만행을 전 세계 인민 앞에 제소하는 고소장 《전 세계 인민들에게 고함—남조선에서의 미국 군대의 만행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세계여
세계의 형제들이여, 벗들이여
그대를 향하여
조선은 웨친다.

오늘의 아메리카를 두고
오늘의 양키들을 두고
3천만 인민이 붓 들어

세계에 고하는
또 한 권의 분노의 서가 여기 있다.

저 놈들을 두고
가슴마다에 못박힌 사연이
가슴마다에 맺히고 맺힌 원한이
바다이면 어찌 이보다 깊으랴
오 저 놈들을 두고
활활 타번지는 증오
바다'물을 다 퍼도 끌 수는 없으리
첫 줄에서
마지막 줄에 이르기까지
(아니 아직은 첫 줄에 불과하다)
그대 만일 량심 있다면
저주 없이는 못 읽으리
그대 만일 정의감 가졌다면
피'줄 뛰지 않고는 못 읽으리

제 집 뜨락에서나 하던 개버릇 대로
수만 리 먼 이국 땅에 와서도

함부로 날치는 미제 양키
마치 돌멩이나 쥐여 던지듯이
함부로 조선 사람에게 총질하는
살인귀들의 만행을 두고

판자'집 구들에서 자다가
저 놈들의 찦차에 치워 죽은
이 땅 어린아기의 원한을 두고
끼니로 예울 나무 뿌리를 캐다가
저 놈들의 총 과녁이 되여
사랑하는 고향 땅을 끌어 안고
검은 머리태를 푼
이 땅 녀인들의 마지막 유언을 두고

오 이 나라의 남쪽 땅을
모조리 감옥으로 만들고
말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빛을 빼앗은
미제 양키들을 두고,…

저 놈들은 또다시
군복 입은 악당들을 내세우고
눈에 피'발을 세운 채
분별 없이 날뛰고 있다.

세계여
동서남북의
형제들이여 벗들이여
세계의 뜨거운 량심들이여

그대 보는가
그대 듣는가
만일 오늘의 아메리카를 알려거든
만일 오늘의 양키를 보려거든
다시 한 번 남조선을 바라보시라

그 어느 한 죄행으로만도
저 놈들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리라
하물며 이런 죄행을
하늘의 푸른 바탕에 옮겨 써도
다 쓰지는 못 하리니.

조선은 이미 언도하였다
오늘의 미제 양키들에게
지구 우에서 살 권리를
더는 주지 말 것을

세계의 형제들이여 벗들이여
만일 그대 곁에 미제 양키가 섰다면
바로 그 놈이 조선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죄수임을 기억하라

조선은 웨친다
세계여, 아세아여, 아프리카여
저 놈들의 손에서 피 묻은 수갑을 빼앗아
저 놈들을 때릴 망치를 만들라
저 놈들의 손에서 피 묻은 족쇄를 빼앗아
저 놈들의 가슴을 찌를 날창을 벼리라

조선은 웨친다.
세계에 고하는
또 한 권의
분노의 서가 여기 있다.

전 초 민

아메리카에 대한 나의 론고

아메리카는 이 땅에 왔다,
칠피 가죽을 씌운 성경책과,
은별을 박은 성조기를 들고,
우리에게 큰 은혜라도 베풀듯이…

아메리카는 피 묻은 더럭손에
이 나라 녀인들의 은비녀와,
아기들의 색동저고리를 앗아 들고도
하느님의 덕분이라—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삼남의 기름진 논밭을 군용지로 빼앗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의 집마저 불사르고도

아메리카는 허울좋게 빌었다,
—주여 불쌍한
이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누가 너희를 이 땅에 오라 했단 말인가?
누가 너희들의 구원을 청했단 말인가?
저 부두에서 등'짐 지다 쓰러진 청년이란 말인가?
산협에서 나물을 캐다
카빙총에 맞아 쓰러진 할머니란 말인가?

대답해 보라 아메리카 살인귀들아,
리 승만 로구를 앞세우고
너희 이 땅을 돌아 다닌 그 어느 곳에,
공장 하나 제대로 돌아 가며
집 한 채, 풀 한 포기 제대로 섰단 말인가?

너희들이 말하는 남조선 《자유 세계》에
어디 한 걸음인들 마음 놓고 다닐 거리와 마을이 있으며,

이 땅 사람들 제 것이라 부를
나무 한 그루 있단 말인가?

대답해 보라
너희 하느님이란 어떤 것인가?
침략과 략탈과 학살…
그 밖에 무엇이 또 너희에게 있단 말인가?

나는 모른다, 하느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 하느님을,
허나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외우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만행의 연막으로 외우는 방패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땅크와 대포면 모든 것이 제 것으로 될 수 있
  다 믿으며
너희들이 하느님을 부르는 그 소리에
그 어떤 대답이 차례질 것인지,
그 어떤 운명이 차례질 것인지.

보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그으며 바다 에 던진
  소년이
남해의 폭풍을 안고 온 남쪽 땅을 불며 일으
  켰다.
너희들이 하느님을 부르며 백주에 울타리 밑
  에 묻은
수만의 령혼들도 홰'불을 들고 일어 서
너의 발'부리에, 머리 우에 불을 지른다,

너희 아무리 십자가를 긋고 하느님께 매달려도
이 불'길은 면치 못 하리라.
항쟁의 불'길은 하늘과 땅에 충천했거니
어떠한 하느님도 더는 열지 못 하리라
아메리카의 길을, 침략자의 길을—

남 시 우

함부로 날뛰지 말라!

내 이 세상에 태여난
그 때부터 너를 저주하였다.

품에 안은 한 권의 책마저
너는 칼을 휘두르며 빼앗아 가고
청춘도 생명도 모조리
일본을 위해 바치라던 너

저주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증오하였다, 너 일본 제국주의

반 평생 나의 가슴 우를

악착스레 밟고 지나 간
저주로운 일제, 너의 자국은
생각만도 진정 몸서리치는데

또다시
침략의 이'발을 드러내고
썩어 넘어진 너의
망령이 발광을 친다.

40 년 훑어 먹던
도적의 습성 바로 그 대로
또 한 놈은 능청스레
《…우리 일본의 의무요,
한국 방위는…》

온 세상 사람들이
늙은이도 젖먹는 어린것도
주먹을 쥐며 성난 목소리…
살인귀에게 죽음을!
철천의 원쑤를 단죄하며

성스런 반미 구국의 대렬은
세차게, 세차게 천지를 울리는데
너는 미제를 등에 업고 버림 받은
매국의 역적들을 끼고 앉았다.

《한일 회담》—죄악의
흥정판을 차리고, 네놈은
남조선 재침략을
뻔뻔스레 뇌까린다.

패망의 아우성 치며
땅 우에 거꾸러 떨어진
피 묻은 기'발 다시 주어 든
이 죄 많은 강도의 후예들아!
너에 대한
저주로운 세월을 엮고
너에 대한 증오로 나는
잔뼈가 굵었거니

이 가련한 퇴물들아!

당장 걷어 치워라
《한일 회담》을

인민의 심판은
이제
네놈들 머리 우에
마지막 불벼락을 떨굴 테다!

김 시 권

나는 론죄한다! 케네디를

케네디—너는 죄악의 산아!
네가 앉은 대통령 의자는
력대의 식인종 두목들에게서 물려 받은 자리
그로 하여 너는 최고 범죄자로
지금 피고석에 앉고 있음을 아는가

네놈을 재판할 권리를 나는 가졌다
네놈은 피와 죽음으로부터 정치를 벌려 놨다,
오늘도 총'대와 사형대를 쥐고
아직 나의 조국 남녘의 형제들을
얼마나 모독하며 죽이는가

잊지 못 한다, 한낮에도 양키들의 구두'발

빨래하는 조선 녀성의 머리를 짓밟아 눕히고
그것을 아메리카의 도덕으로 선포하였음을—
우리의 할아비지들이 나무하러 산에 갈 때
군용개를 추겨 살'점을 물어 뜯어 오게 하고
그것을 용감성의 표본으로 표창했음을—

진정 참을 수 없다, 케네디 놈아,
이 시각에도 너의 악당들은 백악관에 앉아
창문에 검은 천을 내리고 무서워하며
선량한 인민들의 피를 흥정하거니
오, 네놈들은 얼마나 잔혹한 흡혈귀인가!

살인과 침략을 리상으로 살아 가는 악당들아!
바로 네놈들이다! 지금 큐바 땅 우에
야자수 그늘 밑에서 놀며 웃는 어린애의 눈'
동자를,
그 시퍼런 창 끝으로 찌르려는 것은—
바로 네놈들이다! 대만과 남부 월남 인민들에
게서
피를 빨아 먹으려 발버둥치는 것은…

허나 온 지구가 바리케트를 쌓고
혁명의 기'발 높이 무기를 잡고 나섰거니—
아는가, 어제'밤도 인천 부두'가 돌'바닥 우에
너의 졸병 놈이 쓰러져 죽었다
지구의 곳곳에서 네놈들은
정의의 폭풍 앞에 호되게 얻어 맞고 있다
생각지 말라 그것이 네놈의 운명엔 상관 없다
　　고는,

오, 식인종 두목—케네디 놈아
나는 너의 인간 낯가죽을 벗긴다
준엄한 싸움 속에서 더욱 억세여진
전사의 손으로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 낸다

기억하라! 지금 네가 앉고 있는
그 대통령 의자가 그 대로 사형수의 단두대가
　　된다는 것을
네놈들로 하여 폭발하는 우리의 분노의 불'길은
네놈들 죄악의 몸뚱아리들을 불태우며
아메리카 침략사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이 되
　　게 하리라!

김 정 성

박 정희에게

워싱톤은 너에게
독재자의 《왕관》을 얹어 놓고
아메리카의 충실한
《폭군》이라는 훈장을 달아 주었다.

상전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고자
박 정희!
너는 세상에 드문
살인의 《천재》로 되였다.

가는 곳마다 채찍과 사슬
감옥과 단두대를 높이 세워 놓고
어진 겨레들을 죄 없는 수인으로 만들어 버린

이 땅을 피비린 사형장으로 만들어 버린,

박 정희!
너는 인간 백정!
인민의 피와 땀으로 배를 채운
죄악의 고기'덩이!

그러길래, 너 고기'덩이를 두고
노예로 무릎 꿇고
살기를 원치 않는 겨레들
노한 불을 안고 일어 섰나니,

채찍과 사슬
감옥과 단두대도
이젠 너를 보호하는
방벽으론 되지 못 한다.

치솟는 분노와 저주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벌벌 떨며 불안에 떨면서도

너는 강도의 본성을 버리지 않거니,

그럼, 좋다! 너의 소원 풀어 줄 테니,
너를 컴컴한 그 마굴에서 끌어 내여
독재자의 《왕관》도, 《옥좌》도, 《폭군》
  이라는 훈장도
모조리 꾸저서 보내 주마.

보내 주마.
너를 환영하는
영원한 안식처——
염라국으로!

이것이 바로
형벌의 칼을 번쩍 높이 쳐든,
너의 《원》을 풀어 줄줄 아는
조선 인민의 행동이다.

김 순 석

조국에 대답하자!

피를 나눈 형제여! 남반부 동포여!
엄숙한 순간은 왔다, 조국은 부른다
—자유이냐? 등립이냐? 아니면 굴종이냐?
판가름을 지을 때는 왔다
삶이냐? 아니면 다시 식민지 노예로 죽느냐?

우리가 그의 후예임을 자랑하는
을지 문덕, 강 감찬 장군이 묻는다
리 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 과연 선조의 피를 이은
조선의 후예 아닌가?
—그대의 가슴에 끓는 피'방울마다

조선… 조선의 더운 선혈이 아닌가?

천대와 치욕, 기아와 죽음을 불사르고
민족이 하나로 행복하게 살자는
불타는 3천만의 념원은 웨친다
—미국 놈을 몰아 내라
—살인귀를 쓸어 내라

말 못 하는 산천도 소리쳐 웨친다
—남북이 더는 갈라져서 못 산다
설레이는 강하도 노하여 웨친다
—미국 놈을 몰아 내라
통일의 길은 오직 그 한 길 뿐이다

눌리여 살고 매워 산 긴 17 년
놈들이 짓'이기고 다닌 발'자국마다에
동포들의 피와 눈물이 고이지 않았던가
불행의 화근을 뽑아 내기 전에는
동포들의 주검에까지
놈들은 쇠사슬을 감지 않았던가

격노한 량심이여!
불타는 증오여!
더는 용서치 말자
더는 지체를 말자

가슴에 끓는 피'방울마다
타번지는 분노의 불'길이 되여
놈들에게 한 알의 쌀도 내여 주지 말아라!
굴욕의 발'굽 아래 몸부림치는
남반부 온 땅이 벽력이 되여
놈들에게 한 모금 물도 내여 주지 말아라!

그리하여 우리는 떳떳이 대답하자
한 겨레 3천만 힘을 합치여
이 땅에서 미국 놈을 쓸어 내였노라고
조국이여! 슬기로운 조상이여!
—그대들이 지켜 내인 위대한 조국을
그대들의 후손답게
우리는 끝끝내 지키여 냈노라고

한 진 식

미국 놈을 쳐 죽이라

미국 놈일다
격분한 해도 이'발을 갈고
구만리 장천에서
한 달음에 곤두박이쳐
단번에 태워 죽일 미국 놈일다

일어 나라, 일어 나바, 나무'군아
갈 길이 얼마길래 너 여기 누워 있느냐
해 기울면 렴진강 강'바람이
눈보라를 몰고 온다, 일어 나거라

추워서 추워서 불을 그린 사람들
어서 빨리 집에 가야 할 바쁜 사람들

둘이 다 가슴이 뚫려 가슴부터 얼어 들고
등에는 차마 버리지 못 할 겸불 한 지게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 랭돌 방안에
두 눈 말똥말똥 기다림에 지치였을 어린것들아
불 같이 통곡을 하면 오늘 밤 한기를 막을
    것이냐.
얼어 드는 빈 창자 녹여 줄
따뜻한 물 한 모금 뉘집에서 얻어다 마셔야 하
    느냐

시퍼런 하늘아, 너는 너무나 높고도 넓어
황막한 벌판에 눈보라만 날리느냐
기한의 땅에 어린 고아들만 남겨 두고
오늘도 조선의 두 아이 아버지는 미국 놈의
    총알에 쓰러졌구나

기만과 롱락, 잔학한 미국 놈의 꼭두각시 놀
    음에
목숨이 다만 원쑤의 희롱'거리임을 참을 것

이냐
미국 놈의 대가리에 마지막 철퇴를 내릴 심판
의 날을
17 년 긴 세월을 두고 몇 번이나 벼르고 별러
왔느냐
4월의 용사들이여, 남조선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듣는가, 저 소리를,
차마 감지 못 할 눈 황황히 뜨고
심장의 피를 쏟아 언 땅을 녹이며
애타게도 이르는 두 아이 아버지의 말을!

…동토 지대와도 같은 가혹한 남조선 땅은
우리의 더운 피로만 녹여야 하느냐?
미국 놈을 쳐부시라, 그러면
따사로와질 조국의 땅에
우리의 아이들은 얼지 않고
살아 나리라, 살아 가리라

광명한 조국 통일의 날은 걸음걸음 다가 오
거니

그 날을 못 보고 눈을 감는 사람들 한스럽구나
미국 놈의 총알에 쓰러진 부모 형제에게 맹세
하고
모두다 일어 나라, 일어 나 단결하라

미국 놈을 쳐 죽이라
격분한 주먹에 장검을 들고
남조선 방방곡곡
한 달음에 모여 들어
단번에 미국 놈을 족쳐 없애라

리 응 대

한강 기슭에서

1

검푸른 물'결을 뒤번지며
왈칵 기슭에 달려 오고
또다시 달려 오는 파도,
너 고향내기가 반가와서냐!
의분에 가슴 타서냐!

환호에 굽이치는 림진강 물'살이
피 눈물에 모대기는 한강 물에
뒤섞이며 몸부림치며
여울쳐 흐르는 남한강아!
너, 정녕 내 가슴 아니냐!

피어린 내 마음 아니냐!

통분을 못 참는듯
쇠—바위처럼 억센 파도
불쑥 치솟았다가
다시 솟아 올라
울부짖는 강아!

좀 진정하자!
그렇지 않아도 내 가슴
못 견디게 뒤설레여
온 종일 기슭에 서서
침통한 마음 가다듬지 못 하여라!

어찌 모르랴, 네 마음
나도 네 기슭에서 나서 자라
고향을 빼앗긴 몸
강 너머 짓밟힌 김포 땅을 바라보고 바라보며
가슴은 터질듯 아프거니…

나도 네 젖줄기를 마시며

너와 같이 한평생을
마음껏 일하며 행복을 누리며
보람 있게 살아 보자고
아름다운 꿈도 많았다만…

아— 고향의 강아!
너와 같이 억울하여 운 적은 얼마였더냐!
너와 함께 마음 가다듬기도 몇 번이였더냐!

2

한강!
요람의 강아!

내 소꿉 시절엔
누더옷에도 슬픈 줄 몰라
맨발로 저 강'가에 뛰여 나와
온종일 물장구치며 조개 주으며
네 가슴에 어리광대지 않았더냐!

그러나 고향의 가난한 흐름 속에서

내 어린 꿈은 슬프게만 자랐더라!
등이 휘도록 밤낮 일을 해도
늘 끼니 걱정에 엄마, 아빠가 한숨지을 때
나는 곯은 창자를 부여안고
네 가슴에 나와
배'사공의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몇 번 흐느껴 울었던 것이냐—

도적배 오르내리는 가슴에 누워
멀리 검은 연기에 뒤덮인
영등포 하늘을 바라보며,
김포, 부평 백리'벌의 황금 물'결 바라보며
오막살이 내 흙집을 내다볼 때
아— 가슴에 파고 드는 슬픔,
그래도 나는 미처 몰랐더라—
왜, 이렇게 슬퍼만 지는지
어째, 이렇게 배 곯아야 하는지…

나는 자라
히로나까 기계 공장의 젊은 로동자로,

왜놈들 행패에 온종일 시달린
지친 몸을 끌고 황혼의 저— 강'둑 길 걸어 오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거니
아— 비로소 나는 깨달았더라—
이 땅이 노예의 땅임을…
이 강이 눈물의 강임을…

이 때부터 나의 슬픈 노래는
항거의 노래로 바뀌였어라！
선배들을 찾아 영등포, 인천
검은 골목을 남 몰래 드나들며…
밤이면 고향의 젊은 청춘들과
컴컴한 골방에 이마를 맞대고
뜨겁게 새 날을 속삭이던 날,
우리는 똑똑히 아로새겼더라—
오직 조국이 있음으로 하여
고향도 행복도 있다는 것을…

허나 고향이여！
나는 네 품을 버려야 하였다

칼바람 살을 가르고
땅도 얼어 터지는 겨울 밤
이리 눈을 피하여 남 몰래 이 강을 건널 때
아— 어머니는 억하여 그만 말문이 막혔고
안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 오다 따라 오다
바로 저— 나루터에 굳어졌더니…

3

한강! 고향의 강아!
나는 지금 네 기슭에 섰다,

기나긴 세월
꿈 속에서도 사무치던 고향!
그리워 못내 그리워
사회주의 화원을 가꾸던 바쁜 몸이
트럭처럼 숨 닿게 여기 달려 왔다만…

아— 더욱 가슴 아파라!

내 앞을 분계선이 가로막고
나루'배는 오고 가지 않아
강 건너 고향 땅을,
잡힐듯 눈 앞에 바라보이는 김포 땅을
애타게 보고만 섰어라

자꾸 흐려지는 눈을 후비며
남쪽 땅을 바라보고 바라보면
하늘엔 먹구름 뒤덮여
당장 폭풍이라도 터질듯
침통한 가슴만 들먹이고
배 한 척 없는 나루터엔
성난 물오리떼만 울어 에는데…

보이는듯 삼삼한 옛 모습들이여!
저기 두릅나무 축동'가
오붓한 마곡리 마을이여!
내 살던 오막살이여!
눈에 선한 논'둑 길이여!
번개처럼 달려 오는 영상들이여!

놈들의 모진 총칼 아래
지금도 살았는지?…
행방조차 알 길 없는
오매에도 못 잊는 어머니 영상이여!
안해의 모습이여!
지금은 제법 어른이 되였을
그려 보는 내 영남이 얼굴이여!

아—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
안타까운 마음 진정할 수 없어
넋 잃은 사람모양
《어—머—니!》, 《어—머—니!》…
목청껏 목청껏 불러 봐도
강울림은 울려 가는데 대답은 없고…

난데없는 승냥이들의 구두'발 소리,
마구 짖어 대는 카빙총 소리,
아메리카 군용 비행기의 폭음 소리…

어찌 되였느냐!

애타게 나를 기다리며
그래도 발 펴고 살 날을 기다리던 혈육들은…
어디로 쫓겨 갔느냐!
원통한 나날에 눈물이 마르지 않던 고향 형제
들은…

벼 이삭 소담하던 농토는 비행장으로 빼앗기고
그래도 비'바람 막아 주던 오막살이마저 불살
리우고
쫓겨 난 내 어머니, 고향 형제들
쪽박을 차고 어디로 갔느냐!

아— 동포의 원한이 하늘 땅에 사무친 남녘 땅
학대와 굴욕, 기아와 죽음 속에서
숨 막혀 아우성치는 생지옥이여!

4

진정 참을 수 없구나!
생각할수록 통분한 가슴

불'덩이를 먹은듯
확확 분노에 타는 가슴…
아— 몸부림치는 강아!
너, 내 가슴의 의분이냐!

왈칵 솟았다가
뒤번지며 다시 솟아 올라
넘다 부시고 후려 갈기는 파도야!
너,고향 형제들의 통분이냐!
내 어머니의 울부짖음이냐!

형제여! 일어 나라!
학대와 주림의 생활을 박차고
안해여! 영남아! 어서 일어 나 싸우라!
조상의 뼈가 묻힌 고향을 찾자!
그렇게도 아껴 가꾸던 내 땅을 찾자!
사람다운 삶을 찾자!

여기 아름다운 고향 땅 우에
우리 다시 만나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영원히 기쁘게 살 날을 찾자!
고향의 강 우에 풍어기 날리며
너와 함께 흐르고 흘러
언제나 자유롭게 살 날을 찾자!

당장 몰아 내자!
갈기갈기 찢어도 시원치 않을
불구대천의 원쑤 승냥이들을
당장 몰아 내자!
4월의 용사들이여!
분노의 번개여! 터지라!
검은 구름 헤가르고 광명을 찾자!

단죄한다 아메리카

발행소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출판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1963 년 9월 2일 10,000 부 발행

값 82 전 7—320171